

**전일동향**

전일대비 0.20원 상승한 1,392.50원에 마감

4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0.20원 상승한 1,392.5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.20원 하락한 1,390.1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미국 고용 관련 지표가 기대에 못미치자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되며 하락 압력을 키웠으나, 최근 1,380원대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매수세가 달러-원을 밀어 올리며 1,392.50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장중 변동 폭은 6.6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37.54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증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90.10	1395.50	1388.20	1392.50	1392.70
	엔화	939.70	941.05	936.57	937.54	-
	유로화	1623.34	1625.05	1618.34	1621.63	-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1.86	-6.3	-13.36	-25.39
	결제환율(수입)	-1.52	-5.36	-11.38	-21.89

\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
\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**금일 전망**

美 고용 지표 관망속...1,39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3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92.50) 대비 1.10원 상승한 1,391.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관망 속 증시 외인 순매도에 제한적 상승 예상된다. 금일 저녁에는 미국 노동부의 8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있다. 통상 미국발 주요 경제지표가 예정된 경우 외국인 자금은 원화 위험자산 포지션을 중립으로 맞추는 경향이 강해 밤 사이 성장주가 랠리를 이어갔음에도 주식시장 외국인 순매도 전환 가능성이 높으며, 이는 원화 약세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 이번 고용 지표에서는 비농업 부문 고용(NFP)과 실업률이 관건인데, 지난 7월 보고서에서 NFP의 큰 폭 조정을 경한 한 바 있고, 이 같은 조정은 속보치 조사 응답률의 추세적 둔화에 기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. 이에 지표 발표를 기다리며 환율은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. 한편, 미국 ISM 서비스업황이 호조세를 보인 점은 달러 강세를 지지할 전망이다. 8월 서비스업 지수는 52.0pt로 예상치(51.0pt) 및 전월치(50.1pt)를 모두 상회했다.

다만, 지속되고 있는 미 고용시장 냉각 신호와 미-일 관세를 15%로 하향하는 무역합의 서명에 따라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출현할 수 있는 점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전망이다.

<b>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</b>	<b>1386.67 ~ 1397.17 원</b>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b>체크포인트</b>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2025.13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.10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45621.29, +350.06p(+0.77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15.67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672 억원

※ 존 디포드는 인적주요정보제공사가 최후기연습으로부터 적극한 사료를 인종인 것으로 검토사료노면 할당하시기 바랍니다.